



'미디어아트 2012'에 참여하는 줄리안 오피 작 '걷는 사람들'



'아트광주 12'에 참여하는 만주나스 카마스 작품

9월 첫 주 빛고을은 '아트 위크'

(art week)

대규모 문화행사 잇따라 개막

9월이 시작되면서 광주에는 문화향기가 가득하다. 특히 9월 첫주, 대규모 문화행사들이 일제히 개막하는 이른바 '아트위크'(art week)로 관람객들은 행복한 고민에 빠졌다.

아시아를 대표하는 미술 축제로 자리잡은 광주비엔날레, 나도 그림 한점 사볼까 꿈꾸며 만드는 아트마켓 아트광주12, 매일 밤 8시면 도심 한복판 건물을 영상아트 쇼로 수놓을 '미디어 아트 광주', 세계적인 뮤지션들이 총출동하는 광주월드뮤직페스티벌 등이 모두 이주에 개막한다.

가장 규모가 큰 행사는 6일 개막식(일반 관람 7일부터)을 시작으로 오는 11월 11일까지 70여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가는 2012광주비엔날레다.

김성정 감독을 비롯해 아시아 6인의 여성 감독이 공동기획한 이번 비엔날레의 주제는 '라운드 테이블'로 40개국 작가 92명(팀)이 참여한다. 특히 참가작의 절반이 넘는 작품이 올해 비엔날레에서 첫선을 보이는 '신상'이라는 점에서 미술 관계자들과 관객들의 기대치도 높은 상태다.

참가작가들의 면면도 화려하다. 외국작가로는 비엔날레 시민광장에 작품을 설치할 아이웨이웨이, 베니스비엔날레 황금상사상 수상작가인 개념 미술가 제니 휴저, 역시 베니스비엔날레 황금상작상 수상작가로 비엔날레 입구를 리모델링해 작품으로 선보이는 독일 설치 작가 토비아스 레베르거 등이 눈에 띈다.

국내에서는 설치미술가 서도호, 보파리 를 늘어놓는 설치 미술로 인지도가 높은 김수자, 올해 카셀도큐멘타에 국내 작가로는 20년만에 초청된 문경원·전준호, 예

리운드 테이블... 작품 절반 '신상'
'광주비엔날레'

나도 그림한점 사볼까
'아트광주 12'

올해 첫선... 건물 외벽에 빛·영상
'미디어아트 2012'

르메스코리아 미술상 수상작가 김범 등
스타작가들이 참여했다.

특히 올해 비엔날레는 중외공원의 본전 시장 뿐 아니라 대인시장, 광주극장, 무각사 등 광주 전역을 전시장으로 활용, 눈길을 끌며 포토풀리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최미연씨 등 지역 출신 작가들도 역대 행사 중 가장 많은 10명이 참여, 관객들의 평가를 기대하고 있다.

6일부터 9일까지는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미술작품을 사고 파는 '아트광주 12' 가 열린다.

지난해에 이어 이지윤씨가 예술감독을 맡은 이번 아트광주에는 레바논에서 온 러닝 힙스 갤러리, 두바이와 이란에 있는 에타메드 갤러리 등 국내에 처음 소개되는 갤러리를 포함, 미국·일본·아랍에미리트 등 13개 나라 83개 갤러리·기업부스에 400여명의 작가들이 참여한다.

또 사루비아 다방, 브레이브 팩토리, 중국 북경학원 등 비영리 대안공간을 소개하는 '뮤지엄 아울렛'에서는 젊은 작가들의 작

12개국 120여명 작품 전시

'국제여성미술제-여성의 빛'

재즈 작곡자 다크로 페레즈 출연 '광주월드뮤직 페스티벌'

풀을 내 건다.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 작가전에 참여하는 이수경씨 등 국내에서 각광받고 있는 젊은 작가들과 고근호·진원장·최재영씨 지역작가들도 갤러리 초청 작가로 대거 참여한다.

5일 '빛과 사람'이라는 주제로 개막하는 '미디어아트 2012'는 광주시의 미디어 아트 부문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가 입과 미디어 아트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올해 첫선을 보이는 행사다. 진시현씨가 총감독으로 지휘한 이번 페스티벌은 옛 전남도청, 전일빌딩, 아시아문화마루 등 건물 외벽에 빛과 영상을 이용해 다양한 작품을 선보이는 행사다.

권승찬·김준·마리킴·이이남·국내외 미디어 아트 작가 37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5일 옛 전남도청 앞 분수대에서 열리는 개막식에서는 일자형&광주 현대무용단, 스마트매직컴퍼니의 축하공연에 이어 하준수·루이 작가의 '빛+사람'이 진행된다. 6일에는 영국 출신 작가 줄리안 오피의 대표작인 '걷는 사람들'이 전일빌딩 벽면에 선을 보이며 도청앞 광장, 전일빌당 1층과 아시아문화마루 1층은 미디어 아트 전시공간으로 활용된다.

광주미술협회가 주최하는 대규모 기획전 '2012 국제여성미술제-여성의 빛' 역시 7일 개막해 26일까지 전시를 이어간다.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분관과 메트로 갤러리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에는 한국, 미국, 러시아, 프랑스 등 12개국 120여명의 작가 작품이 전시된다.

흥겨운 공연 행사도 대기중이다. 7~8일 전남대 대운동장 등에서 열리는 '2012 광주월드뮤직 페스티벌'에는 파나미를 대표하는 재즈 작곡자 다크로 페레즈, 양방언 밴드 등 15개국 25개팀이 출연한다.

/김미온기자 mekim@kwangju.co.kr



'아트광주 12'에 참여하는 신철 작 '기억 풀이'

강원래 '꽁따리 유랑단' 행복 전파

행복문화사업단, 7일 '장애인 희망 불씨 콘서트'

장애인들을 격려하는 공연이 열린다.
사회적기업 행복문화사업단은 7일 오후2시 광주장애인종합복지관 체육관에서 '장애인 희망 불씨 읍반'으로도 제작됐다.



그밖에 지역 대표가수 김유성이 '혜이 친구야'를 부르며 장애인 그룹사운드 '제멋대로 밴드'와 방송댄스팀 이카루스도 무대에 오른다.

관객들에게는 장애인 희망 불씨 읍반을 무료로 증정한다. 이날 콘서트는 WBC복지TV로 전국으로 2회 방송된다. 무료 공연. 문의 062-376-6355.

/김미온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성 악콩쿠르 소프라노 윤상아 1위

지난 1일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열린 2012 광주성 악콩쿠르에서 소프라노 윤상아(서울대 졸)씨가 1위(상금 1000만원)를 차지했다.



광주문화재단과 광주성 악콩쿠르 운영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콩쿠르는 '페스티벌 오! 광주-정을성 축제' 일환으로 마련된 행사다. 특히 기존 콩쿠르와 달리 광주 출신 작곡가 정을성의 곡을 지정곡으로 채택하도록 했다.

윤씨는 이번 경연에서 정을성 가곡 '매화를 물었노라', 리하르트 스트라우스의 곡을 불러 영예의 1위를 차지했다.

윤씨는 오는 10월 25일~28일까지 열리는 '페스티벌 오! 광주-정을성 축제' 오프닝 무대에서 공연할 예정이다.

이번 경연에는 전국에서 총 105명이 참가했으며 2차례의 예선을 거쳐 본선에는 모두 11명이 참가했다.

/김미온기자 mekim@kwangju.co.kr

만해사상실천선양회 '한국대표명시선100' 출간

한국 대표시인 100명의 시집이 시리즈로
발간된다.

만해 사상운이 1922년 육중시 '무궁화를
심으리'를 발표한 지 90년을 맞아 만해사상
실천선양회가 '한국대표명시선100'을 펴내는
것이다.

먼저 도종환의 '담쟁이'와 윤동주의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라', 한운의 '님의 침
묵', 김남조의 '가슴들아 쉬자', 신달자의 '너
를 위한 노래' 등 5권이 출간됐으며 9월에
김소월과 서정주, 정지용, 노천명, 천상병

등의 시집이 잇따라 나온다.

만해사상실천선양회는 시리즈가 완간되
는 내년에 전국시인대회를 열고 시선집이
나오는 시인들을 중심으로 '시낭송 콘서트'
도 열 계획이다.

출판사 주간을 맡은 이근배 시인은 "한국
현대시문학의 전통을 집대성하고 시문학사
를 바로 세우는 데 그 뜻을 두고 있다"며
"자유시와 시조를 아우르는 출판사상 최초
의 한국시문학대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SINCE 1982

창업 30주년  국제보청기

30% 할인봉사 OFF SALE

www.kjhr.com



국제보청기 독일 한사톤(HANSATON) 정품만 취급합니다.

본점 062) 227-9940 총장점 062) 227-9970
목포점 061) 262-9200 장흥점 080) 222-9975
서울점 02) 765-9940 순천점 061) 752-9940

**이태리가구 40%~
SALE**

NAVER 홍스페이스 신상품 소파 입고! www.hong79.com(홍친구닷컴)

광주광역시 동구 장동 58-15(동구청-장동도터리) 가구빌딩 400평 ☎ 1899-0240

2012 결산 빅세일 10월 25일까지